

# 대한민국 군머로 불리는 '근대적 軍감동회로'

(대한민국 군대)



## 우리는행, 어린이날 맞아 직장어린이집에 선물

우리는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비대면으로 기념선물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는행은 매년 어린이날에 행사와 노동조합위원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에게 기념선물을 증정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선물을 증정했다. /우리는행



## 손보協-서울성모병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맞손

손해보험협회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보협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신용회복위원회)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왼쪽)이 김용식 서울성모병원 병원장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 DGB대구은행, 지역 아동에게 사랑의 빵 나눔행사

DGB대구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지역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만든 빵은 대구 서구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광채 DGB사회공헌홍보부장(왼쪽 첫 번째), 서문선 대구은행 부행장(오른쪽 첫 번째), 임직원 및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 중진공,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남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었다. '사시섬'을 통해 지역상생과 협력에 앞장서는 동시에 직원들이 '섬택(섬+재택)' 근무를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강석주 통영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고상훈 두미북구마을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 시몬스 '시몬스 갤러리 용인구성점' 오픈

시몬스가 경기 용인시 마북동에 '시몬스 갤러리 용인구성점'을 열었다. 시몬스 갤러리 용인구성점은 미니멀한 인터스트리얼 인테리어에 자연채광의 전면 통유리가 더해져 마치 휴양지의 리조트에 들른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시몬스



문형철 기자의

국방 칼럼

대한민국 군대가 첨단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장병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신세대들로부터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머'로 불리며 비아냥감의 대상이 됐다.

머하민국 군머는 '대한민국 군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일부 글꼴에 따라서는 '대'를 이루는 한글 자음 'ㄷ'과 모음 'ㅐ'가 '머'로 보일 수 있는데, 신세대 장병들은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분이 웅장해지는 것에만 시선이 잡혀있는 군수뇌부를 향해 "재들 뉘냐"라는 조소를 보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국방부도 '국밥부'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뭐든 실패하고 말아먹는다 의미가 담겨있다.

최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부실한 급식', '열악한 격리시설', '간부의 부조리 및 가혹 행위' 등 일선 장병의 고충을 공론화시키는 활약을 하고 있다.

육대전이 이 같은 활약을 하게 된 것은 군의 소통채널인 '소원수리함'과 '국방헬프콜'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과 시간 외에 사용이 허용된 '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제를 빠르게 밝히고 해결책이 나오도록 이끄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구약습'에 젖어 '근대화군(軍)감동회로'를 돌리는 일부 군간부들은 "병의 휴대전화사용이 문제를 키웠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보안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은 문제가 없었고, 휴대전화 사용을 막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

그시절 중상당 기간을 장교로 복

무해 본 기자의 경험으로는 '아니올시다'란 결론이다. 그 시절은 캐내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쉬웠을 뿐이다. 변해가는 현실과 시대를 부정했던 구한말 '위정척사파'와 무엇이 다른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다 삭제된 '돈은 많지만 어떠한 준비도 안하고 있는 군대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풍자글은 '현대판 위정척사파'를 신랄하게 비평했다. 기고자는 결정권자들이 전투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 트렌드만 따라가다 보니 어색한 연출사진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입도 안 된 장비(위리어플랫폼, 경항공모함 등)를 가지고 홍보물부터 제작하고, 돈뻘 가지고 홍보물부터 제작하고, 돈뻘 오르면 당장 필요한 전력지원물자와 인력개선보다 큰거 한탕하려는 패시브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실무부대의 각종 소요는 넘치는데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 군의 중간관리자급이 죽어나간다"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이는 체제유지만 생각하는 행정적 군대의 현실이다. 현실은 좋은 나쁜 노래로 만들어진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육군, we 육군'이라는 신군가를 공개하면서 육군의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관계자는 해군은 경함모, 공군은 우주군 등 각군의 비전을 제시한 군가를 내세운 만큼 육군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밝혔다. 이 군가에도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위리어플랫폼과 아미타이거 등이 가사에 실려있었다.

이는 아프카니스탄에 끌려갔던 소련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했다. 아프칸 침공 당시, 소련군에는 군가보다 공산당이 탄압하던 락큰롤 형태의 '사가(私歌)'가 애창됐다. 사가밴드 중에는 아프카니스탄 파병 공수부대원들이 결성한 '블루베레'도 있었다. 블루베레는 뼈를 때릴 정도로 소련군과 소련사회를 비판했다. 군과 사회의 수뇌들이여, 블루베레의 '철학쟁이'란 곡을 들어 보시길 바란다. /captinm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왼쪽 네번째)과 현장 임직원, 협력사 및 근로자 대표 등이 중대재해 ZERO 선포식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화건설

## 한화건설, '중대재해 제로' 다짐

### 전국 57개 현장서 결의 협력업체도 동참 선언

한화건설은 전국 모든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중대재해 예방을 결의하기 위한 '중대재해 ZERO(제로) 선포식'을 지난 4일 개최했다. 전국 57개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한화건설 최광호 사장과 김효진 건설부문장, 김영한 재무실장을 비롯해 각 사업본부장과 안전을 총괄하는 CSO(Chief Safety Officer) 등이 현장별로 참석했다.

각 현장에서는 최광호 사장을 비롯한 현장 대표자가 '2021년 중대재해 ZERO'를 선포했으며 이어서 협

력업체 대표가 동참을 선언했다. 또한 현장소장과 협력사 대표가 함께 중대재해 ZERO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대형 결의문 서약판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건설은 이번 선포문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기업경영의 첫째 지표로 삼고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고위험 작업에 'SMART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CCTV'를 활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현장에서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예측 시 근로자 누구나 작업 중지 요청 및 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김이경, 중앙대에 발전기금 1억 기부

(중앙대 사범대학장)

### '김이경 꿈 장학기금' 조성 매 학기 4명에 장학금 전달

중앙대학교는 사범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이경 교육학과 교수가 4일 서울캠퍼스 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장학증서 전달식'을 통해 총 1억원에 달하는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대학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열린 장학증서 전달식을 통해서도 교육학과 4학년 김지수·서예은 학생과 2학년 오종현·이현지 학생이 각각 장학금을 받았다. '김이경 꿈 장학기금'이란 이름으로 조성된 이번 장학기금은 매 학기 학생 4

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이경 학장은 이전에도 중앙대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선보여 왔다. 임용고시반 발전기금 기부를 시작으로 교육학과 발전기금·장학기금, CAU 한 장 기부 등 책임기간 중 꾸준히 기부해 매진한 결과 현재까지 1억1200만원 이상을 대학에 기부한 상태다.

김이경 학장은 이화여대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행정학 석사,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현진 기자 lhj@



중앙대학교 김이경 교수(왼쪽 다섯번째)와 박상규 총장(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4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장학증서 전달식'에서 1억원의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앙대

## 인사

◆국세청 ◇서기관승진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백승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민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이규성 △국세청 법령해석과 임경환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미애 △국세청 소득세과 김일환 △국세청 법인세과 임형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국세청 조사1과 한상현 △국세청 세원정보과 안형태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정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

세청 조사2과 조사2과 김태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 조사3과 이철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장재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안동숙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2과 박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과 조사관리과 이창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과 조사2과 송명섭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관리과 장영숙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장영숙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관리과 박민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과 조사2과장 정규진 ◇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보호팀 손유승

## 부음

▲최성운(SK증권 구조화본부장)씨 모친상 = 5일 오전 1시30분,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7일 오전 8시, 051-893-4444  
▲오창석(마라톤 국가대표 코치)씨 별세 = 5일, 청양 정산 미당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041-942-4447  
▲김명순씨 별세, 박경중(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박경환(로움코리아계장)씨 모친상 = 5일 오전, 영동병원장례식장(충북 영동) 특실 5빈소, 발인 7일 오

전 7시30분  
▲박관출씨 별세·박상일씨(롯데월드 영업본부장 상무) 부친상 = 5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2225-1000  
▲임석빈씨 별세, 임동혁·임승욱(아리따움 사가정역점대표)·임건혁(선석건설상무)·임순혁·임한희(아시아투데이 부국장)·임은형·임나영씨 부친상 = 4일 오후 2시30분,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6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도 하남 선영, (02)2210-3427  
▲박상훈(쌍용건설 공공영업팀 차장)씨 부친상 =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053)620-4647